

“박빙의 승부, 지키는 야구로 V12 이루겠다”

시즌 출사표 김종국 KIA타이거즈 감독 인터뷰

“좌완 불펜·내야 선수층 등 강화 개막 선발·5선발 경쟁 진행 중 SSG·KT·LG·키움과 5강 예상”



“지키는 야구, 한점 승부에서 강한 야구를 선보여 V12를 달성하겠습니다.”

김종국 KIA타이거즈 감독이 2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D다이노스와 시범경기 직후 열린 시즌 출사표 인터뷰에서 “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승이 목표다”며 “가장 높은 곳을 목표로 팬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곳으로 나아가겠다”고 자신했다.

김 감독은 ‘지키는 야구’, ‘한 점 승부에서 강한 야구’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곳에 대한 목표를 드러냈다.

그는 전체적인 선수층(덱스)이 두터워

졌다고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표했다.

김 감독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덱스가 많이 좋아졌다. 선수들 역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투수 파트는 왼손 불펜들이 좋아졌고 야수 파트는 내야가 경쟁력 있는 선수층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에 “김도영과 박찬호, 오는 6월 합류하는 최원준까지 가세하게 되면 기동력 있는 야구, 한 점 승부에서 이기는 야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펜은 전원 필승조 느낌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지키는 야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수층이 두터워진 만큼 개막전 선발과 5선발 경쟁 모두 현재진행형이다.

김 감독은 “5선발은 임기영과 윤영철 모두 잘 던지고 있어 마지막까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개막전 선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손 앤 더슨과 아도니스 메디나 두 외인 원투펀



김종국 KIA 타이거즈 감독이 2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D다이노스와 시범경기 직후 열린 시즌 출사표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치에 대한 바램은 확실했다.

그는 “오늘처럼 외국인 투수가 선발로 나갈 때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내 려야 한다”며 “승수보다 이닝은 물론이

고 (점수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내려갔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강조했다.

외야와 내야 역시 격전이 치열하다. 1루수 황대인과 변우혁, 좌익수 이창진

과 김석환, 이우성 등이 무한경쟁을 펼치는 중이다.

김 감독은 “김호령이 중견수로 나가면 소크라테스도 가능하고 이창진과 이우성, 김석환도 나갈 수 있는데 야수 역시 시범경기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즌 우승을 위한 경쟁자로 SSG, KT, LG와 키움을 꼽았다.

그는 “1위~10위까지 간격이 좁혀질 것이며,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된 느낌이다”며 “디펜딩 챔피언 SSG를 포함해 KT와 LG, 키움이 KIA와 각축을 벌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작년 키움이 약하다고 평가받았지만 한국시리즈까지 진출했다”며 “기존 선수층을 강화해 공백이 생겼을 때 잘 때우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국 감독은 이번 시즌도 작년보다 더 높이 오르기 위해 준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잘 부탁한다’고 호탕하게 웃으며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엔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한규빈 기자**

‘승격 도전’ 동강대 축구, U리그2 개막전 승리

남부대에 1-0 승...이동민 결승골

동강대 축구부가 올 시즌 대학축구 U리그 2 개막전을 승리하며 1부리그 승격을 향해 기분 좋게 출발했다.

임종우 감독이 이끄는 동강대 축구부는 지난 24일 남부대운동장에서 열린 ‘2023 KUSF(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대학축구 U리그2’ 10권역 남부대와 첫 경기에서 1-0으로 이겼다.

동강대는 이날 후반 30분 프리킥 상황에서 이동민(공격수·1년)이 헤딩 경합 후 골문 앞에 떨어지는 볼을 결승골로 마무리했다.

특히 이동민은 후반 25분 교체 투입돼

출전 5분 만에 결승골을 책임져 임종우 감독의 용병술이 빛났다.

동강대는 오는 31일 오후 3시 보라매3구장에서 초당대와 2차전을 갖고 연승에 도전한다.

한편 올 U리그는 전국 84개 팀이 10개 권역으로 나뉘 1·2부리그 승강제를 펼친다.

U리그1은 1~4권역 36개 팀, U리그2는 5~10권역 48개 팀이 실력을 겨뤄 1부리그 하위 6개 팀이 강등되고 2부리그 각 조 1위 6개 팀이 승격한다.

동강대는 초당대, 남부대, 조선이공대, 전남과학대, 동신대, 목포과학대, 우석대와 한 조다. **최동한 기자**



2023 양궁 국가대표에 선발된 기보배(광주시청), 이승윤(광주 남구청), 안산(광주여대), 최미선(광주은행 테넨양궁단) 등 광주 연구 선수 4명이 지난 24일 광주국체양궁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양궁협회 제공**

광주 연고 공사 4명, 국가대표 선발 ‘태극마크’

기보배·최미선·안산·이승윤 등 내달 평가전서 항저우행 도전

기보배(광주시청), 최미선(광주은행 테넨양궁단), 안산(광주여대), 이승윤(광주 남구청) 등 광주를 연고로 활약하고 있는 공사 4명이 당당하게 올해 양궁 국가대표에 선발되며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대한양궁협회는 지난 20~24일 광주국체양궁장에서 열린 2023년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서 남녀 각 8명, 총 16명을 선발했다.

기보배는 리커브 여자부에서 종합 배점 37.5점, 평균 기록 28.17점으로 종합순위 8위에 오르며 국가대표 8명에 이름을 올렸다. 기보배는 23일 12위에 밀려나며 태극마크가 떨어진 듯 했으나 마지막 날인 24일 3회차 기록경기(70m 3발, 5세트)에서 148점을 쏘는 대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9위 이가현과 배점 37.5점 동점을 이뤘으나 평균기록에서 0.6점 앞서며 6년 만에 국가대표에 복귀했다.

기보배는 “마지막이 될지 모를 경기라

서 마지막 한발까지 최선을 다했다. 태극마크 기대는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라는 마음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마음속으로만 간직했던 양궁 글랜슬래머의 꿈을 다시 꾸게 됐다. 남은 순위평가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양궁 월드컵 파이널에서 세계 여자양궁 왕중왕에 오른 안산은 3위를 차지했다.

안산은 “동계훈련을 열심히 한 결과 좋은 성적이 나왔다”며 “아시안게임에 대한 기대가 크다. 남은 기간 좋은 경기력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컨디션 조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미선은 여자부 4위로 광주은행 테넨양궁단 창단 3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선사했다. 최미선은 “100% 기량을 발휘하지 못해 아쉽다”며 “순위 평가전에서 100% 제 실력을 발휘할 예정”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남자부에선 이승윤(남구청)이 6위로 태극마크를 사수했다.

지난해 순위평가전에서 아시안게임 티켓을 놓친 이승윤은 다시 잡는 기회를 살

려 광주 남자 양궁의 명예를 드높인다는 각오다.

이승윤은 “국가대표 선발 1차 목표를 달성했다. 아시안게임 출전도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자부에선 강재영(현대모비스)이 종합배점 61점, 평균 기록 28.34점으로 2차 선발전에 이어 종합 1위를 차지했다. 2위 임시현(한체대)이, 김소희(청주시청), 전훈영(인천시청), 정다소미(현대백화점)이 5~7위로 선발전을 통과했다.

남자부는 이우석(코오롱)이 종합 배점 64.5점, 평균 기록 28.81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 김재덕(여천군청), 3위 서민기(계명대), 4위 김우진(청주시청), 5위 최재환(대전시체육회)이 자리했다. 오진혁(현대제철)과 최두희(경희대)가 각각 7, 8위로 대표팀에 합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 선발전을 통과한 남녀 공사 16명은 다음달 3~7일 인천, 17~21일 원주에서 두 차례 순위 평가전을 진행하며 1~8위까지 순위를 가린다. 남녀 상위 1~4위가 항저우행 티켓 주인공이 된다. **최동한 기자**



조대여고, 대한핸드볼협회장배 선수권 준우승

일신여고와 결승서 28-33 패 골키퍼 박사랑 ‘우수 선수상’

조대여고 핸드볼이 2023 대한핸드볼협회장배 전국중고등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사진)

조대여고 핸드볼팀은 지난 24일 경남 고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결승에서 일신여고에 28-33으로 져 준우승에 머물렀다.

조대여고는 무안고(29-18 승), 일신여고(23-29 패), 대전체고(31-20 승)와 속한 A조 예선리그에서 2승 1패를 기록, 조 2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서 경남체고를 34-32로 꺾은 조

대여고는 결승서 다시 만난 일신여고를 상대로 설욕전에 나섰으나 아쉬운 패배로 우승을 놓쳤다.

조대여고 윤병은 팀내 최다인 7골로 분전했으나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골키퍼 박사랑은 52개의 슈트 중 19개(방어를 36.54%)를 막아냈지만 팀 패배를 막지 못했다. 박사랑은 이번 대회 여고부 우수 선수상을 수상했다. 조대여고는 잇따른 실책으로 고전하면서 8-17로 크게 뒤진 채 전반을 마쳤다. 전열을 가다듬고 나선 후반전에 골키퍼 박사랑의 선방에 이은 득점으로 추격전을 펼쳤으나 승부를 뒤집는데 실패하고 5점 차 패배로 경기를 마무리지었다. **최동한 기자**